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17일 오후 군산 월명야구장에서 열렸다. 선발투수 소사가 7회초 2사 1, 2루에서 LG 7번 손인호를 삼진으로 처리한 후 환호하고 있다.

## 소사 8이닝 완벽투 한국서 첫 승 김선빈 홈런 '군산 악몽' 털었다

### KIA, LG에 6-0 완승



김선빈이 짜릿한 한방으로 군산 악몽을 털어냈다. KIA 타이거즈가 17일 군산월명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9차전에서 김선빈의 한방과 소사의 호투로 6-0 완승을 거뒀다. 프로야구 최단신이 쏘아올린 홈런에 힘입은 외국인 투수 소사는 4전5기 끝에 8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시즌 첫 승을 장식했다. 김선빈은 17일 경기에 앞서 2루수 안치홍과 방망이가 아닌 글러브를 들고 특별 수비 훈련을 했다. '꼬꼬마 키스톤' 김선빈과 안치홍은 지난 15-16일 나란히 실책을 하나씩 기록했다. 특

히 김선빈은 15일 실수 연발을 하며 경기도 중 윤완주와 교체되기도 했다. 이날 1·3회 두 타석에서 범타로 물러났던 김선빈은 4회초 수비에선 자신의 머리 위로 뜬 이병규의 타구를 잡지 못했다. 실책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타구였다. 5회 무사 1루에서 병살플레이를 만들어내지 못한 김선빈은 이어진 1사 1·2루에서는 대타 정성훈의 평범한 땅볼을 더듬으면서 주자를 모두 살려냈다. 이번에는 실책이 기록됐고 선동열 감독은 바로 김선빈을 덕아웃으로 불러들였다. 팀에서 유일하게 전경기 출장중인 김선빈이 질책성으로 교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지난해 7월 5일 김선빈은 군산 넥센전에서 알드리지의 타구에 얼굴을 맞으며 코뼈·잇몸뼈 골절이라는 중상을 당했다. 부상이

후 처음 찾은 군산에서 중도교체된 김선빈은 벤치에 앉아 팀이 12회 연장 홈투를 치르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무승부에 이어 16일 1-5로 팀이 지면서 승리가 간절했던 17일, 김선빈은 첫 타석에서 작전을 완수하지 못했다. 이용규가 중전안타로 출루한 뒤 번트 작전이 낫지만 김선빈의 타구가 높게 뜨면서 1루수 최동수의 미트에 빨려들어갔다.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기습번트를 시도했지만 공이 투수 앞으로 강하게 가면서 주자 이용규가 2루에서 아웃되고 말았다. 두 번의 타석에서 톱타자 이용규의 진투를 돕지 못했던 김선빈은 세 번째 타석에서 앞선 공·수의 부진을 날리는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1-0으로 앞선 5회 1사 1루, 김선빈이 LG 선발 리즈의 직구를 강타해 좌측 담장 넘어

가는 홈런을 만들어 주자 이용규를 홈으로 불러들이고 자신도 홈을 밟으며 3-0을 만들었다. 지난 9일 최희섭이 롯데전에서 대타 홈런을 터트린 뒤 7경기 만에 나온 팀의 16번째 홈런. 타선의 도움을 받은 소사는 5번의 등판 끝에 한국 무대 첫 승을 신고했다. 8회까지 마운드를 지킨 소사는 3피안타2볼넷 무실점의 호투로 LG 타선을 잠재웠다. 소사의 공격적인 피칭에 LG 타자 8명의 방망이가 헛돌면서 탈삼진도 8개를 기록했다. 직구 최고구속은 154km, 삼각도 154km를 찍었다. 한편 돌아온 최향남은 1군 등투와 함께 복귀전을 치렀다. 9회 소사에 이어 등판한 최향남은 박용택·정성훈에게 연속 안타를 맞았지만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군산=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① 덕아웃 말말말

▲우리 아빠 아들인데요 = 군산상고 출신의 이준호, 군산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자. 군산 3연전에서 9번 타자겸 우익수로 선발 출장한 이준호는 고창에서의 3경기에서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여러차례 호수비를 하면서 고향팬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 조규제 투수코치 “아, 이기고 싶다”

▲우리 용병애들은 착해 = 선동열 감독, 소사가 최근 성적이 좋지 못했지만 성격은 좋으면서, 소사는 12일 넥센전에서 3이닝 7실점으로 피칭을 한 뒤 다음날 불펜 등판을 지원하는 등 성격에서는 합격점을 받았다. ▲공기는 맑아 = 선동열 감독, 군산 속소

에 사우나 시설도 없고 산모기가 많아서 선수단이 고생을 하고 있다며. ▲볼 꺼버릴까요? = 군산월명야구장에서 공의근무중인 투수 전태현, 경기가 끝나지 않고 있다며, 15일 KIA와 LG 경기가 오후 11시23분에 끝나면서 올 시즌 최장 경기(4

시간 52분) 기록이 작성됐다. ▲TV에 많이 나와서 좋았어요 = 16일 KIA를 상대로 생애 첫 선발승을 거둔 LG 투수 우규민, 이닝을 많이 소화하며 승리투수가 돼 기쁘다며, 우규민은 7이닝 4피안타 2사사구 1실점의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다. ▲아 이기고 싶다 = 조규제 투수코치, 선수들이 나중에 지도자가 되어야 애라는 심정을 이해할 거라며.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무단이탈’ 이천수 전남에 2000만원 배상하라

### 광주고법 판결

‘그라운드 의약품’ 이천수와 그의 에이전트에게 법원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방극성)는 최근 전남드래곤즈가 에이전트 대표 김모(43)씨와 이천수(31)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씨와 이천수에게 각각 전남드래곤즈에 2억4200여 만원과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천수와 관련 “이천수의 행위가 구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라며 “이천수가 고용된 기간, 고용기간 중 이천수의 행동, 그 밖의 제반 현황을 감안해 손해배상금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남드래곤즈는 이천수가 구단의 지시를 거부하고 코치진에 막말·욕설·폭행 등을 저지르는 등 구단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2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이천수가 전남드래곤즈와의

고용계약 기간 중 선수로 활동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으로 1심 선고액인 2억2367만여원보다 1853만여원이 늘어난 2억4000여만원으로 책정해 이천수의 에이전트 대표인 김씨에게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천수의 고용계약 의무불이행이 김씨의 의사에 반해 독단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손해배상액을 예정액의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전남드래곤즈는 지난 2009년 2월 이천수에 대한 임대계약을 맺고 이적권을 갖고 있던 네덜란드 페에노르트에 임대료 7400여만원, 수원 삼성에는 이천수에 대한 임의탈퇴 해지 보상금으로 3억8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천수가 같은 해 6월 팀을 무단이탈해 사우디아라비아 알 나스르로 이적하자 임의탈퇴를 공시했다. 한편 이천수는 2002년 한일 월드컵 1주년을 기념해 7월5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올스타전에 출전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천수가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멤버이기도 하지만 K리그에서 임의탈퇴돼 초청을 받지 못했다. /윤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전북·경기 눈치싸움

주말 그라운드에서 10구단 유치를 위한 전북과 경기도의 눈치싸움이 벌어졌다. 김완주 전북도지사가 17일 KIA와 LG의 경기가 열린 군산월명야구장을 찾았다. 16일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두산-삼성전이 펼쳐진 잠실야구장을 찾아 10구단 유치를 위한 행보를 했다. 17일 월명야구장을 방문한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경기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북의 10구단 창단 유치를 위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현재 9개 구단 중 3개 구단이 수도권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일본 퍼시픽리그의 경우도 도료를 중심으로 구단이 밀집되어 있다가 지역으로 팀들이 분산되면서 관중이 증가했다”며 “프로야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분산되어야 한다. 전북은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를 중심으로 야구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야구 열기도 뜨

겁고 관중 동원능력도 대전, 대구 등에 뒤지지 않는다”고 전북의 10구단 유치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해 “2만5000석 규모의 경기장을 신규로 지을 계획이다. 25년간 무료 임대료 줄 방침이다”며 “예산 절의도 끝났고 열의를 가지고 움직이는 기업도 있다. 10구단 유치가 확정되면 모든 걸 공개하겠다”고 언급했다. 한발 앞서 야구장을 찾았던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경기도는 땅도 넓고 사람이 많다. 기업유치도 끝난 만큼 KBO(한국야구위원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전북과 경기도 수위사가 10구단 유치를 위한 발원 가운데 KBO는 19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프로야구 제10구단 창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군산=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60주년 기념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밀레 '국립공원 16좌 고객원정대' 모집**

▶참가신청 : 광주/전라지역 밀레 매장에서 접수 (자세한 사항은 밀레 매장 혹은 www.millet.co.kr)  
 ▶참가특전 : 참여하신 모든분께 밀레 기념품 증정  
**두번째 산행 6월 21~22일(무박2일) / 주왕산**  
 \*일정 및 산행루트는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밀레 마케팅본부 (02-3153-3143, 4)

주최 | MILLET MOUNTAIN BY EXPERIENCE | 주관 | Mtour  
 후원 | 광주일보사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사랑하는 아리랑하우스 **여/름/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홀플러스 건너편)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http://www.geumsoojang.com)